

생애구술을 통해 본 주거의 의미와 사용 I

: 주거의 의미를 중심으로

Meaning and Use of Housing Through Life History I

: Focused on the Meaning of Housing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전공

교 수 홍 형 옥*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학과

교 수 양 세 화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주거학과

부 교 수 전 남 일

Major of Housing and Interior Design, KyungHee Univ.

Professor : Hong, Hyung-Ock

Dept. of Housing & Interior Design, Univ. of Ulsan of Korea

Professor : Yang, Sew-Ha

Dept. of Consumer & Housing, The Catholic Univ., Korea

Associate Professor : Jun, Nam-II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meaning of housing in modern Korea, and to draw the interrelationship of people and housing.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the qualitative research investigated various aspects of housing history among four individuals during the different phases of social and economic transitions. Each narratives showe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life history, and the conceptual frameworks for interpretation were microsociological approach by Morris and Winter(1978) and pathway approach by Clapham(2005).

One narrater named "K" had gone through various housing experiences since her birth in 1933 at a traditional Korean housing, and she moved to a traditional rural community. Another narrater called "S" was born in housing built during the Japanese colonization, gained wealth through the housing boom of the industrialization, and has lived in a suburban condominium. "G" spent her entire life in an urban area, had never owned a house, and lived in a house with poor quality. The other narrater named "L" had lived in a single-family home with a large yard since her childhood, and she has resided in multi-family housing by herself after having a lot of experiences of building houses.

The results revealed that housing could play as a simple role as a shelter, be transformed over family life cycle, become prestige of extended family, social and family status, investment. Meaning of housing from the pathway approach were closely related to hometown, the relation to birth family at postmarriage, economic status, and housing experiences according to the social change. As a conclusion, the meaning of housing is vary, and housing conveys numerous implications including psychologic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주요어(Key Words) :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 미시사회학적 접근(microsociological approach), 경로접근(pathway approach), 주거경험(housing experience), 주거의 의미(meaning of housing)

* 교신저자 : 홍형옥 (E-mail : hong1215@khu.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생애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가족 또는 개인의 생활변화를 기술하고 해석하기 위해 개인의 생애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며 기술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거사 연구에서도 이러한 생애사적 접근이 유용할 것인가? 생애과정 관점은 개인과 가족성원의 삶과 사회단위로서의 가족생활이 시간과 역사의 맥락에서 변화하는 것을 맥락적, 과정적, 역동적으로 모두 분석하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개인과 가족의 주거생활 변화에 중요한 통찰력을 갖게 해주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그 이유는 개인과 가족원의 삶의 변화를 역사적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적 단위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사회사와 연동되는 주거사의 변화를 개인과 가족의 삶을 통해 연역적으로 분석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애사 연구에 관한 문헌을 고찰해 보면, 생애사는 개인의 경험과 요구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서, 심층면접을 통해 얻는 구술 생애사(oral life history)는 구술사와 생애사라는 두개의 연구 분야가 겹치는 것이다.

구술사인 경우에는 살아온 경험을 불러내어 서술하는 것이므로 자기진술 내지 자기 표현적 성격도 있어서 심층면접을 통해 얻은 구술자료는 구술성과 주관성, 개인성을 가지며, 연구자와 구술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료가 만들어지는 공동작업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구술사를 연구할 때는 인식론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윤택림, 2004).

한편, 생애사는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삶의 과정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는 개인적 서술이지만 몇 가지 인식론적 문제점을 가진다. 첫째는, 개인의 삶이 대표성을 지니는가이다. 그런데 이는 개인의 삶은 사회적 과정이나 구조에 의해 구성되지만, 동시에 그 구조들을 개인이 만든다는 것을 인식할 때 해결된다. 둘째는 생애사의 주관성이다. 그러나 이 또한, 모든 역사적 자료는 시작부터 주관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수한 객관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통해 해결된다(윤택림, 2004)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구술생애에 대한 연구는 질적 연구이다. 질적 연구는 최근 들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주거학 분야에서는 많지 않으며, 다른 학문분야에서도 질적 연구 성과에 대해 철학적 배경의 결여, 불명확한 인식론적 입장, 피상적인 심층면접에 그친 부정확한 자료수집, 방법적이고 기술적인 용어에 대한 합의 부재 등의 문제점(천혜정, 2004)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학술단체 등에서 질적 연구방법의 이론과 실제, 원리와 적용에 대한 워크숍 등이 개최(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외, 2008) 되는 등 질적 연구는 아직도 탐색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층면접을 통해 얻은 질적 연구 자료는 그 고유성에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질적 연구의 해석에 대해 연구자는 다양한 이론과 시각을 가질수록 좋으며, 이론이 많으면 많을수록 총체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또한 질적 연구의 대부분 분석의 인식론적 입장이 기능주의와 상관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천혜정, 2004)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방법론적으로 구술생애에 대한 접근은 개인과 가족이 시공간을 통해 살아가는 일대기를 거치면서 사회변화와 기술발전 속에서 나타나는 주거경험을 분석하는 하나의 방법론일 뿐이므로 개인의 삶을 사회사적 변화와 연동하여 통찰해내지 못한다면 사건의 나열에 그칠 뿐 이를 통해 주거사적 안목을 넓히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극히 조심스러운 연구방법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이후 주거의 변화를 연구할 때 거시적 변화 속에서 개인과 가족의 일대기를 거쳐 나타나는 주거의 미시사적 측면을 개인의 생애사적 변화를 통해 들여다본다면 개인적으로 겪어 온 삶의 궤적과 주거의 사회사적 변화를 엮어 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2.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구술생애에 대한 질적 연구는 실증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점에서 유용하므로, 개인의 생애사를 통해 나타나는 주거의 의미변화를 미시사회학적 접근(microsociological approach)의 개념틀로, 개인이 겪는 주거경로를 사회구성주의적(social constructionism approach) 시각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주거의 '의미(meaning)'는 뒤이은 연구 '사용(Use)'과 기능적으로 상호의존적이지만 개념적으로는 다른 현상을 암시한다. 심리학적 담론에서 '의미'는 의도하거나 의미를 전달하거나 의사소통의 특성을 나타내 왔다. 즉 상징적 행동이나 대상이 관습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동의된 감각으로 지시되거나 나타나는 것이다. 의미는 한사람 혹은 사람들 사이의 인지, 관계, 감정에서 일어나는 감정적 가치 혹은 관계를 만드는 대상이나 관념의 속성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의도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특별한 관념이나 가치를 상징하거나 전한다. 철학적 담론에서 의미는 '최소한 4개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매우 모호한 개념'으로 이해되는데 1) 의도 혹은 목적, 2) 명시 혹은 관계, 3) 정의 혹은 해석, 4) 인과적 선행조건 혹은 결과이다(경희주거연구회 편,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미시사회학적 인식론과 사회구성주의 존재론적 입장에서 심층면접을 이용한 질적 연구방법으로 한국의 근·현대를 살아가는 네 사람의 구술 생애사를 분석하여 주거의식과 일상생활의식에 나타난 주거의 '의미'를 해석적으로 읽어내는 데 있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구술자의 주거의식에 나타난 주거의 의미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구술자의 일상생활 의식에 나타난 주거의 의미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고찰

1. 주거사 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방법론

질적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방법의 배후에 있는 이론으로서 연구에 대한 인식론과 존재론적 사색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존재론적 견해를 성찰하여 인식을 유도하고 지식을 생성하기 위한 학문적 방법론은 경험분석적 과학, 해석적 과학, 비판적 과학의 세 가지가 있다(천혜정, 2004). 본 연구는 심층면접법으로 얻어낸 생애구술을 이용한 질적 연구이며, 사회적 변동과 맞물려 개인의 주거행동의 변화와 적응을 몇 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해석하고자 하므로 해석학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질적 연구를 설계하고 기획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기되는 인식론적, 존재론적, 방법론적 문제들에 대한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해석적 과학 중에서도 어떤 철학적 전통에 속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천혜정, 2004). 본 연구는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1차적이라고 한다면 주거생활의 2차적 특성이 그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사회사라고 하는 거시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적응해 가고 피드백(feedback)되는가 하는 것을 밝히는 데 있어서 기능주의적 전통에 속하는 Morris & Winter(1978)의 미시사회학적 접근(microsociological approach)의 개념들에 따른다. 즉, 질적 연구의 특성을 가지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과 가족, 그리고 직업과 연령과 주거특성은 개인과 가족의 규범적 주거결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개인과 가족이 실제로 느끼는 규범적 주거결함(normative housing deficit)의 정도는 문화규범(cultural norm)과 개인의 주거조건의 격차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규범(family norm)으로 완화된 후의 나머지만큼만 주거결함으로 나타난다. 재료의 발달과 기술수준의 발달이 제약이 되며, 만족도에 따라 주거조정(housing adjustment)과 적응(housing adaptation)행동이 나타난다. 이때 이사 횟수는 행동적 성향(propensity to)이 된다. 주거특성은 때로 독립적으로 행위를 유발하는 유도요인(pull factor)이 되기도 하고, 축출요인(push factor)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질적 연구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의미추구를 지향하고 있다. 즉, 인간이 그들이 처한 환경 속에 있는 사건, 사물, 상황에 부여한 해석과 의미들을 탐색함으로써 인간 행동의 이면에 감추어진 관념, 느낌, 동기, 신념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기 때문이다(천혜정, 2004). 의미추구의 방법 역시 행위자적

로서의 의미와 주거행동과 같이 대상의 획득에 따른 행위의 의미추구는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주거의 의미(meaning)는 사용(use)을 전제로 하거나 사용(use)이 이어지기 때문(Arias, 1993)으로서 그 경로가 시간을 두고 탐색될 때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미시사회학적 인식론의 개념들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것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라, 즉 개인적으로는 생애가 진전됨에 따라 정체성과 생활양식의 변화를 추적하는 경로접근(pathway approach)(Clapham, 2005)의 인식론을 가지며, 이는 주거의 변화는 총체적일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관점을 유지하며 주관주의적 접근에 속하는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onism) 시각(Franklin & Clapham, 1997)과 무관하지 않다.

사회구성주의의 적용은 연구자마다 같지 않으나(Sismondo, 1993) 사물의 의미구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몇 가지는 첫째, 문화, 역사적 산물은 문화에 기초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 의한다는 것이고, 둘째, 현재의 세계에 대한 이해방식은 객관적 관찰의 산물이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과정에 따른다는 것이다. 셋째는 이러한 타협된 이해는 다양한 형태를 취하므로 사회구성방식은 무수하며, 각각의 구성은 인간에게 각기 다른 행위를 하도록 하고, 어떠한 구성은 사회적 행동 패턴을 유지하거나 타인을 배제하도록 만든다(Burr, 1995; Gergen, 1994)는 데 동의한다. 동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너무나 서로 다른 듯 보이는 주거경험이 모두 모여 사회변화를 이루어낸다는 것이며, 사회변화에 기여하는 것은 거시적인 것에서부터 미시적인 것에 이르기 까지 의미를 갖지 않는 것은 없고, 총체적이어야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입장이다.

질적 연구는 인식론과 존재론이 결합한 방법론적 결과로서 인간이나 인간 행위의 의미를 파악하고 인간경험에 대한 통찰을 위한 것이므로 심층면접을 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천혜정, 2004).

생애구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화법은 철저하게 주관성을 부각시키므로 신뢰도는 관계가 없으나(Rosenwald & Ochberg, 1992; 김기욱, 1997에서 재인용), 상황을 잘 파악하고 면접자와의 관계를 자기성찰적으로 분석했다면 신뢰도는 보장할 수 있다. 질적 연구는 해석적이기 때문에 가설검증의 엄격함에서도 벗어나 있다(윤택림, 2004). 이러한 준비과정을 통해 심층면접 자료는 설화법(narrative analysis)의 타당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상을 직접 체험한 구술자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이야기, 즉 경험담을 이야기하여 그 자체가 연구 자료가 되도록(Riessman, 1993; 김기욱, 1997에서 재인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타당도는 얼마나 진실에 가까우냐보다는 연구자의 해석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의 문제, 즉 개인의 경험을 사회와 문화 속으로 옮기는 과정이 더 중요하며(Agar, 1986; Riessman, 1993; 김기욱, 1997에서 재인용), 단 한사람의 이야기만으로도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다(김기욱, 1997).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명백한 타당성이고, 둘째는 도구적 타당성으로서 실용적, 범주적 유효성을 말한다. 셋째는 이론적 틀이 얼마나 관찰에 상응하는가 하는 것으로 연구자의 분석과 해석이 연구자가 제시하는 근거자료에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타당성에서 오류를 범하는 것은 잘못된 질문을 하는 것이며, 상호작용을 통해 얻은 자료들은 가장 좋은 타당성의 근거를 제공한다(윤택림, 2004)는 점에 유의하여 구술생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주거사적 의미연구의 이론틀

주거연구의 방법론 중에서 경로접근(pathway approach)의 개념구조를 보면, 주거경험을 분석할 때 개인과 가구 그 자체에 근본적인 주관점이 있으며 이러한 것이 주거에 대한 관념과 태도, 의미를 형성한다고 본다. 이러한 접근은 주관주의적이며, 사회구성주의 전통 안에 속하는데 주거가 목적 그 자체이기 보다는 목적을 향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주거연구의 목표는 개인적인 충족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전반적인 목표와 주거는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경로접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정체성(identity)과 생활양식(lifestyle)이라고 하였다(Clapham, 2005). 결국 생활양식에서 나타나는 자아존중과 긍정적인 정체성의 성취는 개인과 가구의 주거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이 때 주거경로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결혼과 더불어 구성되는 가족구조, 자녀, 이혼, 그리고 직업 등인데 이러한 요인의 변화에 주거의 의미가 어떻게 밀착되어 있는가(Clapham, 2005)가 생애구술 연구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동안의 연구 성과들을 보면, 주거의 의미는 심리적 측면, 철학적 측면, 사회적 측면, 소비경제적 측면(주거학연구회, 2005)에서 발견된다. 심리적 측면에서의 주거의 의미를 넓혀진 자아로서 인식하는 경우와 철학적 측면에서의 실존의 근거로서 인식하는 경우는 주로 자아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거나 상징하고, 소비경제적 측면에서 소비하는 물자의 하나이기 때문에 투자수단으로 주거의 의미를 인식하는 경우는 주로 생활양식과 연결되어 있지만 두 가지는 불가분의 측면도 있다. 주거의 의미는 시대변화와 함께 달라지기도 한다. 즉, 전근대사회에서는 신분의 상징, 가문의 상징으로서 주거가 그 역할을 하였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주택이 내구소비재의 하나로 인식되며 투자수단으로의 경제적 특성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구술자들은 각기 1933년생(75세)부터 1951년생(57세)에 이르기까지 전근대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지식기반사회까지 살아오고 있다는 점이 같을 뿐, 개인적 특성, 가족특성, 지역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이 다르다. 이러한 것은 결국 미시사회학

적 접근의 사회구성주의에 의해 생애구술사를 분석해야 하며, 주거에 관한 모든 측면을 고려하는 총체적 분석이 가능한 것이 바로 경로접근의 가치(Clapham, 2005)임을 인정하고 구술자의 정체성과 생활양식의 규명을 통해 주거의 의미를 분석해야 함을 뜻하고 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통한 설화법을 이용하여 주거경험을 수집하였다. 인터뷰 내용의 기록은 녹음기를 이용하여 구술자가 인터뷰의 주제와 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질문은 “태어나서부터 평생 어떠한 집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알고 싶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특별히 주거의 의미를 질문하지도 않았고, 주거경험에 대해 주제별로 질문하지도 않았다. 태어나서부터 현재의 집에 살기까지 전 과정을 말해달라고 하였고, 그것이 언제였는지 연도를 직접 말하기도 하고 자녀의 나이와 학년 등으로 확인을 하였다. 주제를 정하여 질문하지 않았으므로 자료의 정리도 생애전반에 걸쳐 구술한 내용을 보고 주제에 맞게 분석하였다.

구술자의 선정기준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주거경로상 주로 경험한 주거유형(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이 무엇인가 이다. 단독주택은 다시, 전통한옥, 개량한옥, 절충식주택, 직산가옥, 국민주택, 양옥으로 나눌 수 있지만, 한국주거의 근현대사를 개괄해 볼 때(전남일 등, 2008), 주요 단독주택유형은 전통한옥과 양옥의 단독주택 거주자로 양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주거소유권 유형(소유와 임차)이다. 생애 대부분을 소유한 주택에서 사는 경우와 생애 대부분을 임차한 주택에서 산 경우로 대별하여 4가지 유형으로 압축하였다. 앞의 주요 2가지 기준에 더하여 태어난 시기와 지역, 결혼 후의 직계가족과의 관계, 경제력과 집에 대한 사고방식이 주거경험과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내는 차이를 4가지로 유형화한 후 3연구자가 각각 주변에서 수소문한 끝에 가장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였다.

심층면접을 위해 의사를 타진 한 후 2006년 9월부터 11월까지 직접 방문하여 4~5시간 동안 구술을 들었으며, 인터뷰 도중 이야기가 끊임없이 전개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졌다. 구술자의 이야기는 녹취를 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정리하였다. 한국의 근·현대를 살아 온 구술자 4명의 주거경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제1유형; 전근대성이 많이 남아 있는 전통마을, 전통한옥 거주자로 선정된 **K씨**(1933년생, 현재 75세, 현거주지 경북 함양군); 전통마을의 한옥에서 태어나 도시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주거유형을 경험하다가 다시 귀향하여 시택이었던 300년된 전통한옥을 부분 개조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다.

제2유형; 전 생애의 대부분을 단독주택, 양옥에 살아온 거주자로 선정된 **L씨**(1938년생, 현재 70세, 현거주지 서울 강남);

어려서부터 마당이 넓은 큰 단독주택에서 살면서 여러 번 집을 지어 본 경험이 있고, 마지막 살던 단독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재건축하여 그 중 한 호에서 혼자 살고 있다.

제3유형; 아파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여 자산을 축적한 아파트 거주자로 선정된 **S씨**(1944년생, 현재 64세, 현거주지 경기도 신도시); 적산가옥에서 태어나 산업사회의 팽창기에 아파트 붐을 타고 자산을 축적하였고, 한해에 4채의 아파트를 사고 판적도 있으며 현재는 교외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제4유형; 주거의 소유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는 임차 거주자로 선정된 **G씨**(1951년생, 현재 57세, 현거주지 서울 강북); 지방에서 태어나 고교 입학시 상경하여 도시에서 계속 살았고 아파트를 한번 분양받았지만 아들의 통학거리가 멀어 7-8년간 세를 주다가 팔았다. 결혼 후 한번도 내가 소유한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고 현재도 세를 살고 있다.

이들은 각기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또 후기 산업사회로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변동의 와중에서 주거경험이 상당히 달라 4유형에 대한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개인의 경험 속에 녹아있는 무의식에 까지 도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나타난 주거경험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음을 밝혀둔다.

IV. 생애구술사를 통해 본 주거의 의미

1. 생애구술자의 주거의식에 나타난 주거의 의미

1) 주거는 가족생활을 담은 그릇

산업화 이전 우리사회의 주거의 의미는 가족의 생활을 담은 공간으로서의 '집'의 의미가 강하였다. 농경사회에서 '집'은 물리적 실체이기도 하지만 가족과 친족이 있는 삶의 근거지로서 심리적인 의미가 강하였고, 집의 얼굴인 대문과 집의 규모와 재료 등 장식적인 측면은 사회적 지위를 표상하는 수단(홍형욱, 1992)으로서 기능하였으며, 가문의 정체성이 곧 개인의 정체성이기도 하였다.

K씨는 결혼을 하고 300여년 된 전통한옥의 시택에 들어가 살다가 70년대 초, 정치를 하시던 시아버님을 봉양하러 혼자서 상경을 하였는데, 시아버님이 며느리 수발을 좋아하시니 시어머님이 안가시고 내가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고 하였다. 그러한 표현에서 결혼하면 남편이 일 순위가 아니라 시댁가족과 함께하는 즉 '시집간다'는 말이 곧 결혼을 의미했던 전근대 가족의 의미가 그대로 수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집은 대가족과 확대가족을 지향하는 3대가족, 방계가족, 혹은 일하는 사람 등과 같이 사는 등 핵가족을 뛰어넘어 친지와 친척의 공존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S씨는 60년대 말 신혼기에 4만원으로 얻은 집안 오빠 집의 사랑채에 같이 살았던 기억을 얘기하였다. 한옥이어서 채가

나뉘어 있어서 집중형 평면보다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덜하기도 하였겠지만 그보다도 먼저 작용한 것은 친척과의 한 집 기거가 별로 불편하지 않았던 당시의 정서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장짓문으로 가려진 방이 있고, 진짜 한식집이고 마루도 이렇게 조각마루(우물마루). 절처럼. 대청두 있구, 아랫방 옷방도 있으면서 그 방 뒤에 쪽방도 붙은 거 있죠. 내가 살던 방이 사랑채 방인데 높은 마루(누마루)도 있구.

71~72년도에는 부채가 있는 언니네 집에 한 식구처럼 살던 기억을 말하였다.

언니가 돈을 모두 다 빌려가서 언니네 집에 같이 살았어요. 양육인데 얘기하나 데리고 갔는데 밥은 따로 해먹었어요. 부엌은 따로 없는데 아궁이는 따로 있구, 애 아빠가 불구척하게 왔다갔다 하니깐. 집은 네모난데 부엌과 화장실이 있구 안방과 방, 여기 방이 또 하나. 내가 쓰던 방이 큰 방이었어. 현관있구. 한 2년 살았나? 한 집처럼 살았지요.

심지어는 새집에 가면 돈이 모자라 어차피 세를 주어야 하므로 이사를 가면서 세 들어 살던 사람과 같이 이사를 갈 정도로 한 집에 살면서 한 가족처럼 인간적인 정을 두텁게 쌓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다.

같이 살던 할머니 할아버지를 내가 데리구 이사를 같이 갔어요. 그 집에. 방을 하나만 쓴다고 그래 갖구. 이렇게 마루에 붙은 방을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세를 뵈어요. 이삿짐도 내가 우리 이사하는 차에다가 같이 싣구 갔어. 사람까지 데리구 같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인자 너무 좋아 갖구. 그러구 같이 따라 간대요.

S씨도 어린시절에 아버지는 잘 안 계신 집에서 3대가 같이 살았다고 회고 하고 있다. 아버지가 집에 잘 안 계셔서 같이 살 여건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었으나 당시에 친척과의 동거가 자연스러웠던 시대적 정서 때문에 더 가능했던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언니가 둘인데 하나는 결혼을 안했구 큰 언니는 결혼을 했구, 아들은 결혼을 해서 같이 살았어요. 3대가 살았어요— 아버지는 집에 많이 안계셨어. 맨날 출장을 다니셔서 보기가 많이 힘들었어.

S씨는 피난시절에 두 집에서 다섯 집 식구가 나누어 살던 기억을 말하였다.

큰아버지하구 셋째 작은 집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 4형제, 당숙까지 사촌들하고 모두 두집에 나눠 살았어요. 다섯집 식구였지. 하나가 흥역에 걸리니까 애들이 한꺼번에 막 다하더라구요.

피난시절이라는 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산업화 이전의 주거의 의미는 가족생활의 근거지로서 개인과 핵가족의 정체성보다는 확대가족의 정체성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생활양식을 가지며, 직계와 방계가 함께 더불어 사는 공존의 생활공간의 의미가 더 강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2) 주거는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투자수단

산업사회가 되면서 주거는 주택이라는 생산품으로서의 의미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주택을 스스로 짓기 보다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을 선택하면서 상품으로서의 특성과 투자가치의 의미가 강화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아파트라는 주거유형이 인기를 끌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아파트 거주는 곧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의미할 정도로 시설설비 수준이 우수했고, 아파트에 당첨되기만 하면 옷돈이 붙어 단숨에 금전적으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대대손손 살면서 가문의 상징에 개인의 정체성을 투사했던 산업사회 이전의 주거의 의미보다는 투자를 위해 내 아파트는 세주고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다른 집에 세를 들 정도로 투자재로서의 주거의 의미가 확대 재생산되는 경향이 농후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일반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시대를 살았으나 구술자 4사람의 경험은 전혀 다르기도 했지만 4명 중에 집을 소비재로 인식하고 투자의 수단으로 생각한 것은 아파트를 통해 자산을 축적한 S씨 뿐 이었다.

S씨는 72년-80년 사이에 무수히 이사를 다녔는데 이는 남편이 전근을 많이 다닌 덕에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단지 투자를 위한 이사로도 여러 번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개인과 가족의 정체성내에서 자연발생적이었는지 보다는 살고 있는 동네가 투기의 현장 한가운데여서 학습효과가 나타난 경향이 있으며, 남편의 직업상 소유와 거주가 분리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행동적 성향(propensity to)으로 가속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S씨는 사당동 집에 살다가 집 값이 올라 팔게 된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1970년대, 여기 주택(사당동)을 가서 일년을 살았거든요. 일년을 살았는데. 그때 뭐 과천으로 정부청사 간다하고 발표가 났어요. 그랬더니 저기 막 과천에 땅값이 막 투기꾼이 몰려오고 땅값이 오르게거든요. 오르니까 거기를 차단을 했어요. 하루만인가 이틀만인가. 그거를 잡는다고 딱 발표

하니까 투기꾼들이 사당동으로 몰렸어요. 우리 사는 동네로 그래서 밥 먹고 나가면 사람들이 왔다갔다 했는데 집값이 치솟아요. 하루하루 다르게. 그래갖고 내가 일년 만에 650만원에 산 것을 1703만원에. 획기적이지 나 한참 뺨튀기 한거지. 근데 우리 집이 만 집들은 보면은 마당이 좁은데 이렇게 들어가면 보도 블럭을 깔아 갖고 마당 조금 해놓고 마루 들어가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 집은 보면 마당만 보여. 대문은 큰 대문이었는데 집은 바짝 붙어서 안으로 쪽 들어 앉고 마당이 횡 하니 넓으니까 사람들이 보면 이게 땅이 우리 집으로 들어왔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게 엄청 넓어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집을 노려. 땅이 넓은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살림살이 가셔도 100만원이나 올려 받았어.... 이 집을 팔아 갖고 반포로 간 거예요. 그때 내가 반포 아파트 시세를 보니까 1,420만원이더라고. 근데 이 집 팔면 딱 맞겠다 싶어서 부금 제외하고 집을 팔고 가니까 벌써 올라갔고 1570만원에 샀어. 그것도 투기꾼들이 막 사가지고 옥신각신 하더라구.....

반포아파트에 드디어 입성을 하게 된 것은 사두었던 사당동 아파트가 올라서 가능했는데 돈이 남아 또 투자를 위해 작은 아파트를 사둔 것을 보면 이미 주택을 투자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투자를 위해 반포아파트를 사두기도 했지만 거주할 기회를 앞당긴 것은 자녀교육 때문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1980년대 초,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사가지고 그냥 세를 놓고 그러니까 돈 남은 것 가지고 이 집을 입주할 하려니까 모자라요. 세 빼주고 거기 은행 용자 자동으로 들어있는 거 계산하고 그러니까 반포아파트 들어갈 돈이 안돼. 이래 저래 아빠가 용인으로 갔으니까 나도 인제 세로 가져해서 수원으로 갔어. 왜냐하면 용인에 출퇴근 버스가 수원에 와. 그래서 수원에 그 버스 다니는 동네인 화서동 주공아파트로 13평짜리를 하나 전세를 얻어가지고 갔는데요..... 인제 내가 돈이 좀 남았잖아요. 그때 진짜 부동산이 난리 났었어요. 사당동에 민간 아파트를 짓는 게 있었는데 평수론 16평이거든요. 내 동생이 자기도 집을 사야하는데 결혼할 때 시골에 자기네 아빠 앞으로 논이 있어. 그거 팔리면 시세대로 집값을 해 줄 테니 자기 이름으로 해 달래. 그럼 동생은 세금 같은 거는 없잖아. 그래서 개 신랑 이름으로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그게 300만원이야. 민간아파트. 지금도 아마 거기 재건축 했을 거야. 그래서 그거를 개 이름으로 사주고 개가 거기 가서 살았구요. 나는 수원에 갔을 때 1년 거기 가서 살았거든요. 13평짜리 방2개 아파트 1년 전세로 살다가. 꿈의 궁전 반포 아파트로 이사를 들어

은 것은 81년도야..., 내가 애들 거기 보내는게 꿈이었거든
요.....

91년도에는 분당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나 돈이 모자
라 반포 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안양으로 전세를 간다. 그렇게
하여 돈이 남으니까 또 사당동에 아파트를 사둔다. 그리고
다시 90-99년까지 관사에 살 기회가 주어져서 아파트 두 채는
전세를 놓게 된다. 2000년도에 반포와 분당아파트는 전세 놓은
채로 또 다른 아파트를 사서 입주할 하게 되는데 아들과 딸
딸 집까지 한해에 4채의 아파트를 산 경험도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산 아파트는 미분양되었던 84평 아파트를 분양가
밑으로 깎아서 거저 주운거나 마찬가지로 하였다. 집을 물건
사듯 투자까지 위주로 사고팔고 하는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월급쟁이가 집만 사고팔아 직계가족을 위해 아파트
4채를 가질 수 있었던 경과를 소상히 보여주고 있으며 한번
옳기면 1억씩 벌어서 가게에 보탬을 주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감추지 않았다. 80-90년대를 거쳐 2000년대에 이르기 까지
부동산붐과 미분양 등 부동산의 사회적 가치평가와 직업적
특성을 적절히 활용하여 투자에 성공한 것에 자아충족감을
느끼고, 가족의 형편보다는 아파트 비용충당에 맞추어 이사하
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생활양식에 저항감과 규범적 주거결함
(normative housing deficit)을 느끼지 않았던 것은 결과적으
로 얻은 금전적 보상이 규범적 주거결함보다 컸기 때문이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주거의 가장 큰 의미를 투자가치에
두고 그에 맞추어 살았던 구술자의 생활양식을 엿볼 수 있다.

정자동 아파트하고 반포 아파트는 전세. 그래서 요
근래 보면 전세가 매번 오르잖아요 오르니까 해결이 되더
라고. 우선 전세 놓은 돈을 주먹에 쥐고 있으면서 여기
분양을 누구누구 이러면서 2년 지나면 전세를 또 올려
받고 또 올려 받고 이러니까 거저를 넘겨주고도 돈이
남아. 또 구미동에다가 큰 아들 앞으로 집을 하나 샀어요
이걸 얼마에 샀냐면 이거 27평이 복도식이 아니라 괜찮더
라고. 샀는데 요걸 1억 9천 5백 정도에. 아니 분당. 내가
이걸 2억 9천에 팔았어요..... 은 아들집을 또 샀어. 영통에
다가 처음에는 세를 얻어줬다가 생각해 보니까 집값이
자꾸 오를 기미가 있더라고. 그러기에 24평짜리를 9천9백
만 원인가 1억 가까이 주고 산거지..... 이거는 뭔가 하면
은 정자동 우성 아파트 그 집을 아파트로 분양을 받았잖아
요. 이거를 증여를 했어. 증여. 세금 안 물으려고. 요만큼
물었어. 증여세. 작은아들. 그래서 이집(구성의 84평)은
큰아들 이름으로 돼있고. 정자동 집은 작은 아들 그때
왜 그랬냐면 기준 지가를 자꾸 올려 세금 많이 받으라고
그래서 내일 모레 기준지가를 올려서 발표한다고 그러더
라고 그래서 얼른 서둘러서 증여를 했죠. 개 이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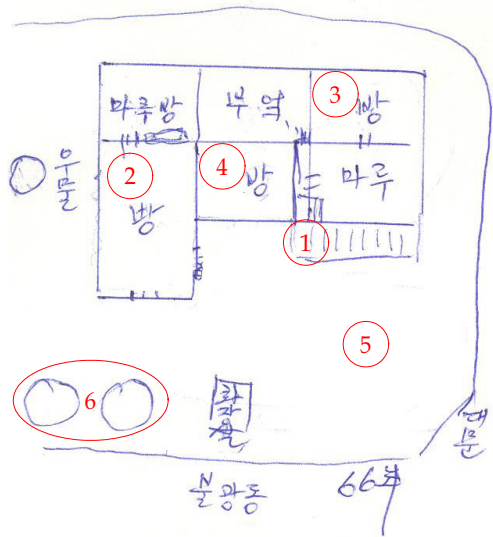
두 개가 되잖아. 이거를 오빠 이름으로 돌려놔. 오빠가
집이 없는데. 그래서 오빠 이름으로 돌려놔는데. 이거
그냥 두면 양도세를 물어 둘 중에 하나는. 보니까 증여를
하는 게 세금이 훨씬 싸더라고. 이거를 실거래가로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거래가가 아니거든. 정부고시가로
하는데 이게 해마다 엄청 올라요..... 반포아파트는 월세로
했어요. 전세로 했다가 아빠가 월세로. 전세보다 월세가
나오니깐. 은행에 돈 넣어놔도 얼마 나오지도 않으니깐.
그저 지금 월세 90만원 받는데. 생활하는 거는 연금 갖고
실컷 해요. 반포 집은 아직 안 헐었어. 이수교 옆에 있는데,
그저 지금 8억 9억.....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내가 운이 맞아
가지고 내가 아파트만 사면 집값이 자꾸 오르더라고. 그래
갖구 우리 애 아빠가 나보고 당신은 한번 움직이면 1억씩
한 대. 지금 사는 이집 84평, 그건 아주 주웠어. 5억 4천에
샀나?

심지어는 안양 살 때 방이 없어서 아이를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넣으려고 대전으로 학교를 보낸 이야기, 아파트 값
충당하느라고 과외를 못시켰던 얘기에서 모든 생활에 강박관념
이 있다고 할 정도로 투자가 우선이었던 구술자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주거경로를 따라 70년대 이후에는 투자성공에
정체성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그에 따라 생활양식이 변화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안양에 가니까 안양 중에서도 저쪽 평촌 쪽은 비싸더라고.
고. 박달동을 가니까 공장 쪽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가
좁싸... 왜냐면 내가 3년 지나면 우리 집 새집 생기니까
그때까진 참고 살아야한다... 방이 없어가지고 방을 어떻
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수원, 대전과학교가 있었는
데... 알아봤더니 기숙사가 없대. 나는 기숙사를 보내는
게 목적인데 기숙사가 없대..... 그 때는 과외 엄청 했는데,
우리 애들은 과외 하나도 못시켜 갖고 오늘날도 내가
속 아픈 거 생각하면. 그리고 집 늘리는 건 이 집 가지고
이용해서 늘리지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기
바쁘지. 과외 하는 건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반포아파트
는 나중에 팔려고 생각을 했지. 더 나중에. 오를 거 같아
서.....그래서 버티는 데까지 버티보다가 나중에 입주할
때쯤에서 팔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
서 우선은 애들 방 하나씩 줘야 되고 그때 작은 아들은
인제 내가 애한테 설명을 잘 했죠. 니네가 커서 이제는
작은 방도 못쓰고 방은 다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형편이 이렇고 이러니까 니가 꼭 과학고에 가야 되겠다.

3) 주거는 사회적 지위/가문을 표상하는 수단
전근대사회에서는 집은 곧 가문의 지위를 표상하는 수단인

었다. 열려가 나면 대문에 홍살문이 걸리고, 종2품 이상이면 솟을대문을 달았으며, 신분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가 달랐다(홍형욱, 1992).



<그림 1> 1966년 불광동집

근대사회로 오면서 집에 대한 자부심은 가지고 있는 가재도 구(TV나 전화)의 희귀성이나 이웃의 사회적 지위와의 동일시를 통해 느끼는 경향을 구술자들의 표현에서 읽을 수 있었다. L씨는 66년도에 당시 처음 생산을 시작한TV를 동네에서 유일하여 소유하여 안테나집이라는 별호를 가지고 있었음을 자랑스럽게 회고하였다.

그때는 텔레비 있는 집이 드물었어요. 우리집 별호가 안테나집이라 그랬어. 마당이 넓은데 레슬링 있는 날은 미리 보게 해 달라구. 여기 문(<그림 1>의 1번 장소)에 텔레비를 내놓으면 사람들이 극장 처럼 모였어. 전화는 없었던 것 같애.

L씨는 73~76년에 24평 당산동 시범아파트에 살던 시절을 회고하면서 이웃들의 수준을 크게 자랑스러워하였는데 그것도 동네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특히 구술자가 사는 동(棟)의 수준이 높았음을 더 강조하였다. 이러한 측면은 주거지의 선택 시 수준이 낮은 지역의 좋은 집보다 수준이 좋은 지역의 덜 좋은 집을 사람들이 선택한다는 근린선택이론(이경희 등, 1994)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동(棟)은 권찮은 사람들만 살았어. 한집은 박사야.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어. 여자는 큰 회사사장 딸이야. 딴 동은 형편 없었어요. 두동을 빼고는. 우리 동하고 다른 동은 작은 평수였어. 두 동만 잘 짓구, 평수도 조금 넓고

그 때 우리친구들이 우리집에 와 보면 내가 굉장히 잘사는 것으로 소문이 났더라고. 아파트가 그렇게 좋더라고. 계단도 청소를 윤을 반짝반짝하게 내 놓잖아.

그러나 사회변화에 따라 집이 가문의 상징이었던 것도 퇴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구가 존재하는 한 쉽사리 버리지는 못하는 것은 전근대사회의 자부심이었던 솟을대문이 달린 사대부가가 한편으로 자부심이기도 하면서도 개인에게는 얼마나 골레로 작용하였는지를 보여주는 K씨의 회고에 잘 나타나 있는데, 현재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면서도 자랑스러움이 묻어나는 것을 그의 회고과정에서 엿볼 수 있었다. K씨는 ‘참판댁’이라는 별호를 가진 300여년된 조선 후기의 집을 물려받아 96년에 다소 개조한 후 귀향하여 노후를 보내고 있으며 불편해도 이 집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다. 지금은 대학교수를 하고 있는 장남도 노후에는 이 집에 귀향하여 살 것을 당연히 하였다. 유구가 있는 한 집이 곧 가문의 영속이라는 의식이 더 오래 유지됨(홍형욱, 1992)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만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참 좋은데 사시네요, 참 좋습니다 하는데 나는 그거는 환상적이라고 생각했어. 이제 내가 나이가 드니까. 여기 있을 곳이라 하고 다짐을 하고 살아서 그렇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문만 나가면, 문만 열면 겨울에 춥잖아요.... 여름에는 모기하고 파리하고 내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날 파리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그게 불편해요. 벌레가 말할 수 없거든? 물론 자연 환경이 좋을수록 벌레는 더 많다. 파리니 모기니.

그래서 나는 여 앞에다가 문에 유리를 달았으면 싶어서. 유리를 달았으면. 여기가 지금 문화마을로 지금 지정이 되게끔 확률이 80%래. 문화마을로. 문화마을 되고 나면 손을 못 대거든? 우리가. 물론 집은 우리는 문화재 신청은 싫다고 그랬어. 사랑에는 유리문 있지. 예 사랑애요 사랑에는 있지만, 앞에 유리문 있어요 모기도 안 들어오고 파리도 안 들어오고 사랑은 안 고쳤지. 그때 돼서.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불편해요....지(큰아들)도 인자 다음에 학교를 퇴직하면 언젠가는 중간에 지도 들어올 것 아이가....

S씨는 72년~80년 사이에 무리를 해서 사당동 집에서 반포로 이사간 것을 잘한 일로 회고했는데 그 이전부터 반포에 사는 친구 집을 부러워했던 것이며 학교 수준도 높기 때문에 아이들은 꼭 반포에서 학교를 보내고 싶어 그동안은 세를 주었다가 아이들 학교 보낼 즈음 무리를 해서 이사하였음을 회고하였다. 즉 이 또한 근린 선택 시 정체성을 좀 더 나은 이웃과 동일시한다는 이론을 반증해주는 것이며 그에 따라 생활양식이 구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꿈의 궁전 반포 아파트로 이사를 들어 온 것은 81년도야. 사당동 집에 살 때 친구집에 가 보면 글로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불 때는 것 없이 뜨신집에 살고 뜨신물 나오고 냉장고도 없었는데 친구는 냉장고도 있고 거기서 아이스크림을 꺼내 주는데 우리 애들이 부러워 했구. 22평 반포아파트에 들어올 때도 남편은 때 놓고 내 동생이 3살짜리를 데리고 왔었어요. 우리딸이 세화여고를 나오고, 우리 아들이 반포중학교를 나오고 내가 애들 거기 보내는게 꿈이었거든요.

4) 주거는 몸을 의탁하는 은신처

매슬로우(Maslow)의 동기이론에 대입하여 주거욕구의 수준을 체계화(이경희, 1994)한 바에 의하면 주거욕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피호처로서의 욕구이다. 자고 먹고 입고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장소로서의 피호처는 불안정하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손상을 입는 결핍가치(deficiency value)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안한 것이 첫 번째 기준이다. 안전과 편안의 수준이 자아존중감을 높이거나 자아실현까지 이룬다면 존재가치(being value)에 이르는 것이다. 그런데 미시사회학적 접근에서 볼 때, 규범적 주거결함의 정도는 문화규범과 현 주거수준의 차이를 가족규범으로 완화시킨 만큼만 나타나기(Morris & Winter, 1978) 때문에 존재가치에 이르지 못할 정도의 주거수준에 살 경우에도 실제로 느끼는 규범적 주거결함은 가족규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S씨와 G씨는 이점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S씨가 투자재로서 주택을 인식하여 1년에 4채의 아파트를 산적도 있고 한번 움직이면 1억씩 번 데서 자아존중감과 자아실현을 느낀 사례인 반면에, G씨는 주거의 의미를 몸을 의탁하는 공간, 즉 은신처 혹은 피호처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고 있었다.

G씨는 신도시 분당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적이 있고 냉장고와 가스렌지, 전화를 설치하는 등 이사 갈 준비를 모두 마쳤으나 통학이 불편하다는 아들의 한마디에 이사 가지 않고 7-8년간 세를 준다. 그 이후에도 살지도 않으면서 왜 집을 소유하느냐는 남편의 말에 집을 팔고 아들의 통학거리가 편하여 세를 들었던 곳에 그냥 현재까지 10여 년째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소유권도 갖지 말아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투자란 비용대비 채판매가격이 높아야 하는 것인데 경제에 나온 집을 살 기회가 있었으나 정서적으로 집주인이 마음 아플 것을 연상하여 매입할 수 없었다고 회고하였다. 그에 나타난 주거의식에서 볼 때, 집을 물체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주인과 하나 된 정체성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당에 인제 아파트를 했는데. 95년도에 입주해 95년도부터 그냥 비워뒀어요. 우리가 글로 갈라고 애 대학 들어

가면.... 그냥 관리비만 내고 비워두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거기다가 전화까지 설치하고 다 놓고 내일 이사 가요 인제. 근데 애가 그러는 거야. "엄마, 공부 좀 해야겠는데, 시간이 모자라." 이제 대학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애한테 해줄게 뭐 있느냐? 시간은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다. 내일 이사 가는데, 오늘 저기 부동산에 했더니까. 아침에 했는데, 세를 났다구. 그래서 세를 7년간 났나? 8년간 났나? 그랬다가 2003년도에 팔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10년 살어.... 남편이 "내가 살지도 않으면서, 남 세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냐? 안 살 거면 팔아라." 노래를 부르더라구.... 내가 살지도 않은 집을 왜 소유하고 있느냐 이거야... 남자가 뜻을 자기 뜻대로 해야지 집이 잘 되지. 아 그럼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팔았어요.

문화규범 중 가장 작은 규모는 소속된 집단이나 지역사회규범이다. S씨가 친구가 사는 반포아파트가 부러워 무리를 하여 이사 가려고 했던 것이나 그동안 살았던 과천과 사당동, 신도시 부동산경기를 체감함으로써 행동적 성향(propensity to)으로 작용하여 주거조정에 대한 결정이 정서적이기 보다는 경제적인 데 치중되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G씨의 경우 문화규범으로부터 오랫동안 격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의사결정시 문화규범보다 가족규범이 우선하는 현상(Morris & Winter, 1978)이 작용함으로써 주거욕구의 수준이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며 정체성도 그 정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래저래 결혼생활 30년 동안 집을 장만하지 못했고, 가졌던 집도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팔 수 밖에 없어서 부동산 가격이 수배가 된 현재도 남의 집에 세를 살지만 정서적으로 여유가 있고 당당하다. 집은 단지 피호처로서 몸을 안식처일 뿐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거주형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는 의식하고 있음을 '측은지심이 생기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었다.

계획 없이 자기 집에 가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제일 좋은 집이라고 생각해. 손님 오실 경우 있는데, 저는 이제 날 도와주는 게 우리 집에 안 와주는 거다. 인제 한 친구가 우리 집에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오지 말래. "온다고 하는 거 어떻게 말래?" 그랬어요. "오지 말라면 안와 주는 것도 예의다"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이 와서 보고 측은지심이 생기는 거. 그거 그 일을 왜 하냐는 거야. 우린 괜찮은데.

2. 생애구술자의 일상생활의식에 나타난 주거의 의미
주거경험이라 함은 의식주를 포함한 가족의 일상생활로서

여기서는 식사행위의식, 제사행위의식, 방 배분 및 침실분리의식, 이웃관계 의식 측면에 나타난 주거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식사행위의식과 주거의 의미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에는 먹을 것의 수준과 겸상을 누구와 하는가 하는 것이 곧 가족 내 지위와 직결(홍형욱, 1992)되어 있었다. 구술자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대체로 산업화 이전까지는 남녀유별과 장유유서의 전근대적 식사 예법이 지켜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세대가 다르면 남녀유별의 의미가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할아버지는 다른 상이었지만 할머니는 며느리와 시누이가 아니라 아들과 겸상을 했다는 것이다.

K씨는 어린시절(1940년대)을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밥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지하고 같이 먹었는데 그때만 해도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한상을 안 드렸어. 할아버지 따로 아들하고 할머니하고 한상을 차려드리고 며느리하고 시누이들하고.

그런데 5~14세까지 밀양에 살 때는 다같이 두레반에서 밥을 먹을 정도로 바뀌고 있다.

부엌은 조그마한 게 있었고 부엌도 창문이 있어서 음식을 해서 문으로 이렇게 넣어줬어. 그때는 어리니까 우리 뭐 다 옷방에서 자고, 오빠 둘하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쓰고. 밥 먹을 때 같이 먹었어. 남자 여자 다 같이 두레상에다가 모두 같이 앉아 먹으니까.

L씨도 40년대를 회상하며 같이 안방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남자와 여자, 어른과 수하로 구분되었던 식사규칙을 얘기하였다.

식사는 안방에 모여서 했어요. 상을 안방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 드시고 아버지 혼자 상을 드리면 그 상을 내림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꼭 받았대. 식사준비는 주로 하인이 했어요.

그러나, 60년대에 살던 집에서는 다 같이 한상에서 식사를 했지만 계절에 따라 옮겨 다니면서 식사를 했다고 하였다. 이미 식사를 누구와 하는가가 의미를 갖지 않고 실용에 따르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식사는 추울 때는 방으로 들어가고 안 그러면 마루에서, 손님은 그냥 안방에 많이 모시죠.

S씨는 어린시절에 남녀를 구분하고 어른과 수하를 구분했으나 여자들은 아이들과 한상에서 먹었다고 회상하였다. 장유유서, 남녀유별의 겸상 원칙이 살아있음을 볼 수 있다.

식사야 뭐 우리 어려서는 엄마가 다 했지만 올케가 같이 살면서는 올케가 다 하고 아버지하고 오빠 차려주고 남자끼리. 우리는 아버지가 너무 어렵구 무서워 갖구 한상에 주는 걸 원치 않았어요. 반찬을 마음대로 떠다 먹지를 못해. 아버지 하구 한상을 주면은. 오빠두 자기 밥그릇 가까이 있는 것만 먹지 반찬을 마음대로 먹지를 못하더라구. 애들하구 여자는 옆에서 같이 큰 동근 상에 다 모여서 먹구. 상은 접어서 두구. 퍼 놓고 이렇게 해서 부엌에서 쟁반에다 해서 날르구, 수저 놓구.

G씨도 10살 이전 어린시절을 회상하면서 아버지와 나머지 가족이 구분해 식사하였던 기억을 얘기하였고, 아들조차도 어려워져 앞에 놓인 반찬만 먹었다고 했지만 밥상에서 예절을 가르쳐야한다는 의식이 있어서 식사시간 이 밥상머리교육 시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고 회상하였다.

하루의 생활은 아버지는 우리하고 다른 분이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은, 같이 밥 먹은 기억이 없어요. 다른 상이고 여기는 여자들, 그러니까 여자들이지 나머지가. 반찬도 틀리고 밥 색깔도 틀리고. 그래서 저는 중학교 다닐 때는 새벽에 나갔다 밥 늦게 들어와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렸을 때는 아버지하고 같은 상에서 밥 먹은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인제 밥상머리 교육은 받았던 거 같아요. 반찬을 털지 말아라 이런 거. 지금도 그래서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계란 후라이도 못 먹는지 안 먹는지 그래요. 이걸 저쪽(남자)만 먹는 걸로 돼가지고. 그 비싼 계란 후라이.

2) 제사행위의식과 주거의 의미

K씨의 경험을 통해보면, 주택은 양옥이지만 전통한옥의 마루에서 제사를 지내던 풍습이 60년대에도 그대로 이어져 온 것을 보면 주택의 유형보다 주거의 관념이 더 늦게 변용됨을 볼 수 있다. 시어머님은 고향에 계시고 서울에서 시아버지를 모시며 4대 봉사과 명절 제사를 지냈고, 그 사이 남편과 합류하여 아이들 낳고 살다가 96년에 고향집을 편리하게 고치고 귀향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는 구술자는 아마도 이러한 전근대적 가족생활 이념을 가진 마지막 세대일 것이다.

K씨는 60년대의 서울생활을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사는 안방에서 지내요. 안방이 컸죠. 큰일은 안방에서 했지. 아버님께서 육십 살. 내가 서른여덟 살 때부터 시작

해서. 아버님께서 제사를 내한테 주셨어요. 서울에서, 바로 고마.-일년에 4대 봉제사니까 8번 하고, 설 추석 10번을 지내거든. 서울 집에서부터 내가 지내기 시작했어.-마루가 있었으니까. 마루에서 지냈지. 양옥집이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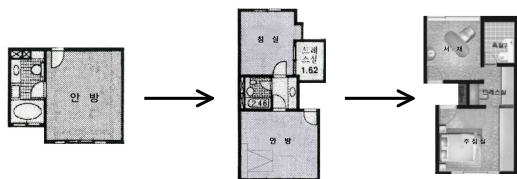
이처럼 주거유형이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안방이 가족생활을 포용하는 공간으로서 상징성이 있고 중요했던 시기까지는 안방이 가장 중요한 방으로서 규모도 컸으며 가족들의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포용하고 있었다. 70년대부터 부부의 침실이 다목적으로 사용되던 안방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 80-90년대의 좌식의 안방이 드레스 룸과 화장실을 지나 양식침실과 공존했던 시기를 거쳐, 2000년대에는 주 침실, 침실 1, 혹은 안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할지라도 40평형 이상에서는 침대생활을 전제로 주인침실(master bedroom)이 되면서 평형이 증가하여도 전체면적 대비 비율은 감소하면서 전용발코니, 드레스룸과 화장실이 붙고 가까이 서재와 같은 부속실이 달리는 2실형 구성으로 바뀌고 있음(최은희, 2003)을 볼 수 있다.

이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또 지식기반사회로 바뀌면서 안방의 기능이 가족실에서 좌식침실로 또, 주인침실로 바뀌어가는 시대상황을 대변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체성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를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다가보다는 건설회사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차별화 마케팅 전략에 의해 동반 변화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3) 방 배분과 침실공유의식과 주거의 의미

근대사회에서는 집안내 거주 위치가 곧 지위를 상징하였고, 방 물림은 곧 권한의 물림을 의미(홍형욱, 1992)하였다. 지방에 따라 은거형, 혹은 종신형 등 가계계승의 유형이 다른 것도 실질적으로는 기거위치의 변화로 표현되었다. 근대사회를 거치면서 주거유형은 집중형으로 바뀌었으므로 현관을 중심으로 볼 때 현관 가까이와 밖이고 안방 가까이로 들어 갈수록 안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아파트라는 주거유형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70년대를 거쳐 80~90년대와 2000년대는 많은 평면변화를 거쳐 왔다. 따라서 70년대의 평면에서는 안방과 자녀방 혹은 아동실이라는 표현을 찾을 수 있지만 점차 안방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거실 중심의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90년대 평면에서부터는 주로 방 1, 침실 1, 주인실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1) 나머지는 침실 혹은 방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향과 크기

1) 70년부터 2000년대까지 안방 → 안방+침실 → 주침실+서재



73년 반포주공 95년 분당 신원 08년 잠실 시엘

와 기능에 따라 적절히 배분됨을 볼 수 있다. 심지어는 2000년대 100여 평의 주상복합아파트 평면도를 보면, 서재, 가족실 등 여러 기능을 가진 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실은 3개 뿐(http://www.serve.co.kr/sise/s_detail.asp?aptcode=13144&space=100&type=)으로서 소인수 핵가족 중심의 주거생활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방수가 중요했던 70-80년대까지의 주거에서는 안방이 종합적인 가족실 역할을 했지만 가족수가 현저히 줄어든 90년대 이후부터는 실의 기능이 중요해 졌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구조의 변화에도 영향을 있지만 점차 주택자체의 규모가 커진 것도 관련이 있으며, 서구적인 생활양식의 보편화로 방이 거주인의 모든 생활을 담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기능이 더 중요해 짐에 따라 분화된 점에 기인한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방배분과 침실공유기준도 변화하였다. 전근대사회는 남자끼리 혹은 여자끼리는 세대를 뛰어넘어 같은 방을 쓰기도 했지만 아동실이라는 용어가 생기고 자녀수가 줄어들면서 침실배분 기준이 문화규범적으로 정착(이경희 등, 1994)되어 갔다.

침실공유기준은 곧 방배분과 연관되는데 1980년대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방 배분 기준이 사회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인1실 사용기준이 미국연구가 18세 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2세로서 훨씬 빠른바 이는 입시제도의 영향이 아닌가 사료되고, 동성자녀끼리의 동실 사용가능 나이 차이는 미국이 4세 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8세로서 훨씬 허용적(이경희 등, 1994)인데 이는 역사적인 전통의 맥락이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K씨는 23살 신혼에 두 칸짜리 안방 중에 옷방에 기거를 했고 아랫방에는 시어머님이 기거를 하셨으며 시아버님은 사랑에 기거를 하셨다고 하였다.

23살에 개평에 내가 시집들 왔어요. 그때만 해도 조금 혼기가 늦지.-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때만 해도 직장 다닌다는 건 모르고.-이 지금 안방이 두 칸이었어요. 두 칸인데 여기 놓을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방에 공간이 없겠어요. 그 때만해도 좀 이상하게 살았다. 놓을 요쪽으로 났어. 우리 방 뿔 기라고 놓을 요쪽으로 놓고 문하고 문 사이에 놓고 우리가 이쪽에 잤어.-신랑이 서울에서 내려오면 여기서 잤지. 여기서 둘이 자지. 여기서 어머니님 주무시고. 아버님 사랑에 계시고. 여기 미달이 있었잖아. 미달이 사이에 문 요 위에 하나 두고 놓을 가지고 바리케이트 하나 쳤다 그랬잖아. 농 방향이 요쪽에 있었다고 그랬잖아.-

K씨는 어린시절을 회상하며 전통 한옥에서의 침실공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술하였다.

작은방에 있으면 시누이들이 있잖아. 한 이불 밑에서 같이 살았어. 옛날에 숙모님이 결혼해서 오셨거든. 작은 어머니는 작은 방에 엄마는 큰방에 사셨는데, 할머니하고. 아버지는 객지에 계셨지만 전부 남자 분들은 전부 사랑에 사랑에도 미달이문을 해놓고 생활을 하시더라고. 옛날에는 나무로 땀으니까 따신 데는 할아버지 쓰시고 옷방에는 아들 쓰고. 큰아들은 할아버지하고 거처 나고. 부부간에 만난다는 건 극히 어렵지. 같이 살아야지 어떻게 해, 옷방에 미달이문 해놓고 여자 형제들은 할머니하고 큰 올케하고 그렇게 한방에 있었지. 지금 같으면 그렇게 살라면 살 사람 없을 거야.

또한 시어머님은 고향에 계시고 며느리를 좋아하는 시아버님을 시중하러 K씨는 31세에 서울로 오게 된다.

아래층에 방이 세 개인데 아버님 하나 거처하시고 이쪽에는 그때 식모하나 데리고 있었는데 그때 식모하고 내하고 얘기하고 거처하고 하나는 말하자면 지금 생각하면 손님 접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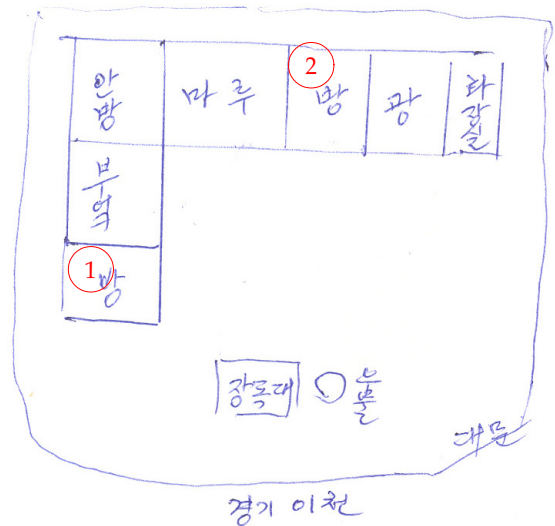
1973년도부터 12년 동안 살던 단독주택은 방이 3개 있었는데 다음과 같이 공유하고 있다.

안방은 내하고 영감하고 막둥이 딸하고. 우리 인자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 아들하고 저저 누나하고 인자 방하나 쓰든가 하고. 여기 부엌에는 밥하는 아이 하나 쓰고. 내가 하나 데리고 자고. 그 집에서, 서울서 12년 살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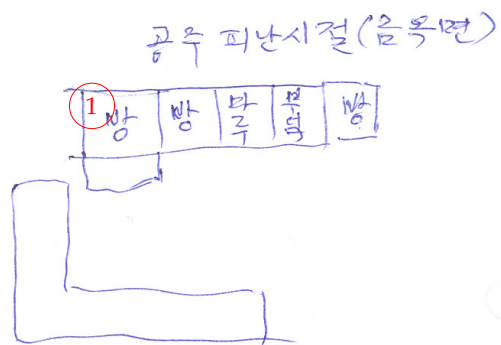
96년도부터는 귀향을 하여 300년 된 집을 고쳐서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전근대적인 확대가족 봉양의 규범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부부가 같은 방을 쓰는 등 근대사회의 변화는 적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사랑을 썼는데, 거의 어머니하고 한방에 살았어. 혼자 외로워하시니까.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고생 참 많이 하셨어. 나하고 3명이서 같이 살았어. 우리 어머니 요래 누우시고, 가운데 내 눕고 고다음에 영감 눕고 겨울에는 이방을 같이 쓰고 여름에는 저쪽에 쓰는데. 자기 저쪽 쓰는데 화장실이 가기 인자 좀 불편하다. 저쪽에 쓰니까. 근데 눕으니까 화장실이 자주 간다. 저쪽 화장실에 가다가도 오기도 하는데, 내는 인자 이방을 쓰지만은. 손님 우리 집에 많이 오는 편이에요. 애들도 뭐 오고. 저쪽 방 많이 쓰지. 참 불편해요. 시골에...

L씨는 어린시절을 회상하면서 아들은 결혼을 해서 같이 살았고 3대가 같이 살았는데 아버지는 출장을 자주 다니셔서 보기가 많이 힘들었다고 회상하였다. 40-50년대에는 한옥에 살았는데 방1은 내가 쓰고, 방2는 오빠 내외가 쓰고, 안방에는 부모들이 계시고. 1년 살다 피난을 떠났다고 하였다<그림 2>. 공주 피난시절 1년을 살던 집을 회상하면서 피난을 가다가 사촌언니가 애를 낳는 바람에 주저 앓은 초가집이었고<그림 3> 방 하나를 빌려 살았는데 돗자리도 아니고 명석도 아닌 것이 깔려있고, 이불하나에 다 들어가서 자는데 7명이 살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목은 전쟁을 겪으면서 남녀유별, 장유유서의 전통사회의 침실규범이 외부적인 여건에 의해 무너지지 않을 수 없었던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2> 6.25후 경기 이천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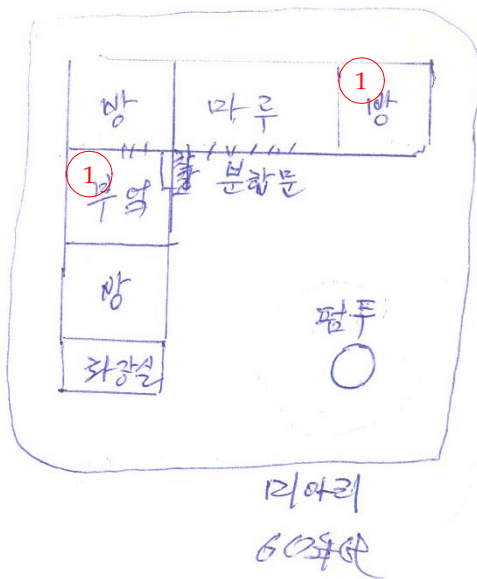


<그림 3> 공주 피난시절

60년대까지도 시골에서 와서 집에 있었던 사람도 꽤 있었고 하였다. 친지가 있으면 같이 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했던 당시의 정서를 보여준다.

그냥 한방에서 사는 거죠. 여기 이런데서<그림 4>의

방, 사람이 좋으니까 친구 아들, 친척, 동생 다 갖다 났어. 일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다 같이 살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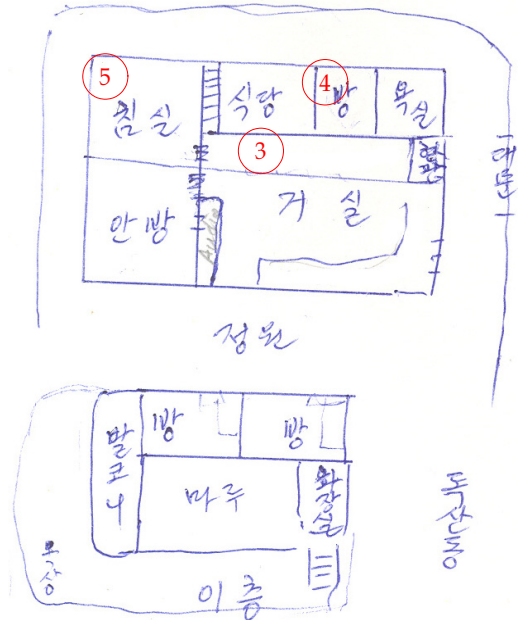
<그림 4> 60년대 미아리집

66년의 회상에서는 부부가 같은 방을 쓰기보다는 아버지는 따로 쓰고 어머니는 딸과 같이 쓰면서 내외를 하였지만, 아들부부는 같은 방을 쓰게 하였다는 대목이 나온다. 이는 전근대사회의 부부유별에 따른 침실사용규범이 변화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딸이 혼자 살고, 누가 오면 이 딸하고 같이 지냈어. 우리 큰애를 낳고는 시어머님이 데리고 갔는데 아들이 회사에서 일 못한다고 당신이 딸 방에서 데리고 갔어. 아버지가 혼자 쓰시고 따님하고 같이 쓰시더라고. 아들 며느리 잘 자라고.... 아주 헌신적이었고, 가사 일은 같이 했어.

76~78년을 회상하면서 침대가 등장한다. 입식가구로 침대가 등장하면서 침실로서의 기능이 분화하면서도 안방은 좌식을 유지하면서 가족실의 역할을 했던 것과, 제사라는 가족행사에 친척들의 유숙을 당연시했던 당시의 가족규범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의 방1은 침대 하나짜리 놓고, 여기 방 2는 두개짜리 2층 침대 놓고 할머니는 방 4를 쓰셨어. 우리는 방 5에서 침대에 잤어요 안방에는 그냥 장롱 놓고, 거실은 가족들이 많이 보냈어요. 여기 의자가 있으니까 여기서 많이 놀아. 제사를 지내면 시삼촌들이 세분 계셨는데 내외 분이 다와. 늦게 지내면 자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잤어 다들.



<그림 5> 독산동에 지은 2층집

S씨는 결혼전까지 살던 집에서 아버지는 아래목을 쓰시고, 본인은 동생과 함께 옷방에 거처를 했는데 동생이 결혼을 하고 나서 월남을 가자 울케를 사랑에 거처하게 했다가 아이가 셋이 생기자 방이 모자라 방을 더 들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것은 확대가족으로 살면서 좁은 집에 적응해 가는 과정과, 증축을 통해 주거조정을 하면서도 한집에 확대가족이 살아야한다는 당시의 가족규범이 아직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침실배분의 규범을 보면, 이성형제라도 결혼전까지 같은 방을 쓰게 하였지만 동성이라도 시누울케는 남편이 월남에 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방을 쓰게 하였던 것에서 부부동실의 현대적인 침실배분 규범이 정착되기 직전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S씨는 60년대 말이었던 신혼기에 4만원으로 집안 오빠의 집에 방을 얻는다. 시누를 데리고 있으면서 돈을 모아 집을 마련하기 위해 남편을 따라가지 않고 직장생활을 한다. 이때부터 소위 경제관념이 투철했던 면을 볼 수 있는데 64세인 현재 아파트를 투자대상으로 인식을 하고 소유와 거주가 분리된 과정을 겪으면서 자산가가 될 소질을 보여주고 있다.

장짓문으로 가려진 방이 있고, 장짓문 사이로 쪼그만 방이 하나가 붙어 있는데.. 결혼하자마자 시누를 데리고 있었어요 시누가 이방을 쓰구, 뭐 차단스 같은 거 놓구나 먼 들어서 잠잘 정도였는데. 남편하고는 결혼식만 하구 안 살았어요. 전방에 가서 있구, 시누랑 같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자꾸 데려 갈려고 하는데, 손에 뭐 뽕금이라 두 쥐는 게 있어야 겠어서 5년을 체울려고 딸 낳고 6개월 될 때까지 직장에 다녔어요.

72년~80년 사이 사당동에 살 때도 소유와 거주는 분리된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주하기 위해 집을 마련하기 보다는 투자를 위해 집을 마련하곤 한다. 70년대말 사당동 살 때를 회고하는 것을 보면, 집은 핵가족 위주라기 보다는 친지들의 집합소 역할을 하지만 집의 위치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환경이라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고 있다.

방이 넷인데 우리 둘 쓰구, 세사는 사람이 풀 쓰구. 그 집은 딸이 셋이구, 우리집에 또 셋이잖아. 나두 여기서 하나 더 낳으니까. 식구가 다섯명. 내동생이 애 봐준다고 와 있어가지구 우리집에서 한 2년 있었지. 그러니까 여섯명. 우리는 애 셋하구 다 한방에서 자구 이모가 한 방 쓰구. 세사는 집은 친정 남동생이 와서 몇 달있구. 형부가 부도내 갔구 도망와 있구. 애 들도 어리니까 싸우구 그래요. 시장 골목안에 있는 집이라 애들이 밥만 먹으면 트락에다가 신발을 주욱 늘어 놓으면서 파시오, 사시오만 하는 거예요. 애 아빠가 그걸 보면서 너무 속상해 하면서 막 못하게 하는데 애는 그걸 모르잖아요. 애아빠가 보기 싫다고 이사가자고 그러더라고.

80년도에 그동안 세를 놓았던 반포아파트에 이사를 와서도 침실배분에 있어서 확대가족적인 가족규범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방 하나는 동생네, 또 하나는 시어머니, 또 하나는 아들 둘, 하나는 부부, 딸은 거실에서 기거를 하게 된다.

동생네가 방하나를 썼는데 나중에는 시어머니도 모셔왔는데 나중에는 애 아빠한테가서 밥을 해주시고 우리는 아들 둘을 문간방에 내주고 딸이랑 같이 썼어. 동생은 2년반을 같이 살다가 애아빠가 서울로 오게 되어 나갔어요. 나중에 할머니를 모셔왔는데 갑갑해 하셔서 내가 노인정에 모셔가지요. 애들이 커가면서 딸이 할머니하고 한방을 썼는데 아들들을 문간방을 쫓더니 중학생이 되니까 키가 180이예요. 문간방이 15평인데 책상두개에 2층침대를 놓았는데 작아서 못자는 거야. 이제 집을 늘리는게 내 숙제인거야. 딸은 틀니를 빼고 주무시는 할머니가 무서워 마루에서 거처를 했어요. 그래서 애가 마루에서 살았어. 지를 망쳐놓은게 나래. 그러니 그때 형편이 뭐 그러니.

현재 사는 아파트는 84평인데 아들들에게 모두 아파트를 사주고, 반포에 재건축을 기다리는 아파트가 있고, 침실이 5개인 이 큰 집에서 두 내외만 산다. 그런데 아들며느리와 같이 사는 것을 S씨는 절대 반대라고 하였다. 부부중심으로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의식은 핵가족의식이 보편화된 90년대부터 이미 관념과 이상 속에 자리 잡았으며, 형편이 되면 확대가족으로 살고 싶어 하던 전근대사회의 이상형가족은 90년대 들어서

형편이 되면 핵가족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문화규범도 가족규범도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집은 거저 주웠지. 분양가에서도 빼 주었으니까. 우리끼리 살아도 한달에 300만원은 있어야하는데 이 큰집을 운용하고 살려면 애들 데리고 살아야하는데 난 그거는 싫어. 애 아빠는 며느리랑 같이 살고 싶어하는데 자기가 고달픈 것이 아니니까. 난 절대 반대야.... 작은애가 같이 살자고 하는데 내 몸이 못따라요. 나는 싫다고 했어요. 애가 이쁜 거하고 봐주는 거하고는 별개야. 개들이 오면 정신이 없어.

5) 이웃관계의식과 주거의 의미

L씨는 결혼 후 줄곧 단독주택에 살았고 집도 몇 번 지어보았다. 98년도에 주변이 모두 다세대 주택으로 변하여 당시 살던 저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꾸어 현재까지 살고 있다. 처음에는 2개호를 썼으나 현재는 혼자 살기 때문에 1개호만 쓴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우리 집에서 두 달에 한번씩 모여 내가 다과를 내고 반상회를 해요. 다 남들이니까. 지저분해서 내가 관리를 해야 쫓더라고. 뭘 많이 준비해야한다고 자기들은 절대 못하겠대. 좀 자주 만나야지. 복도전기, 수도비는 아예 은행에서 나가게 자동이체해 났어요. 10세대, 지하 2세대인데 나만 집에 있어요. 최고령이야. 가깝게는 안해두 다 친해. 다 좋은 사람들이예요. 처음에는 전부 한 반이었어요. 전에는 부부팀으로 돌아가면서 반상회를 했었어요. 그때가 좋았지.

처음과 같지 않은 이웃관계를 얘기하고 있다. 건축주이기 때문에 건물관리를 위해 반상회를 하지만 이웃관계가 옛날 같지 않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아파트로 이사 가기 위한 중간단계로 살고 있으며, 언제든지 여건만 되면 이사를 가는 편의적 이웃관계임은 반상회가 건축주의 집에서만 열리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다세대 주택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전세대가 같은 입장인데도 자기 집을 헐어 다세대주택을 지은 S씨만 떠나지 못하고 애착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그전의 주택에 대한 애착이 남아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경제력도 없고 팔리지도 않기 때문에 못 떠난다고 하였다.

S씨는 72년~80년 사이에 사당동 다른 집으로 이사 갈 때 돈이 안돼서 세를 살던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이사를 갔다고 하였다. 그 분들도 같이 가고 싶다고 하고, 방하나만 쓰면 된다고 해서 같이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이랑 부엌을 같이 썼고 개수대도 같이 썼다고 한다. 그러던 S씨가 20여년 후 자녀들과도 같이

살기 싫다고 하는 것은 핵가족 중심의 폐쇄적인 이웃관계로 문화규범과 가족규범이 동반 변화하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II. 결 론

이 연구는 4명의 서로 다른 주거경험자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주거경로에서 나타난 정체성과 생활양식을 사회구성주의 시각에서 미시사회학적 개념틀로 분석을 시도한 질적 연구이다.

서로 다른 주거경험의 유형화에 따라 선정된 구술자가 4가지 유형을 대표하는가에 대한 타당성과 구술내용에 대한 신뢰도는 기존의 질적 연구방법론의 논의에 의거하여 논증하였으나 주거이론의 시각과 개념틀에 맞추어 분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현상학적 전통에 따르면, 생애구술사는 단 1명의 구술도 유용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다고는 하였다. 그러나, 주거경험은 백인백색인 경향이 있어서 주거경험을 유형화하여 구술대상을 선정할 때 주거의 의미 획득에 있어서의 차이를 그 기준으로 하였다. 따라서 주거경로 상 주거의 유형(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과 주거의 소유권(tenureship, 소유와 임차)을 가장 중요한 객관적 기준으로 삼았다. 이렇게 선정된 4명의 구술자 K씨, L씨, S씨, G씨의 구술에 대해 주거의식과 일상생활의식 측면에 나타난 주거의 의미를 분석한 질적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구술에서 나타난 주거의 의미는 주거경로에서 나타나는 정체성과 생활양식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생애구술자의 주거욕구의 실현단계(피호처, 안전, 사회적, 자아존중, 자아실현)가 각기 다름을 볼 수 있다. 그 중 가장 보편적인 주거욕구인 사회적 욕구는 그것이 방계 및 친지까지 포함한 확대가족주의에서 핵가족 중심의 1세대주의로 사회사적 변화를 겪고 있을 뿐, 가족중심주의에 머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구술자의 주거경험에 나타난 주거의 의미 역시 전근대적 농경사회의 종적 가족주의와 방계까지 포함하는 확대가족주의가 산업사회를 거쳐 현대 지식기반사회에 이르기까지의 사회사적 변화에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민주적이고 실용적인 핵가족중심주의로 변화되어 식사행위의식과 방 배분 및 침실공유의식에 반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셋째, 구술자들은 현재 60세 전후의 고령자로서 농경사회에서 태어나 산업사회를 거쳐 지식기반사회를 살아가면서 상품으로서의 주택의 속성에 적절히 편승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대별된다. 이러한 특성은 배타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서 주거경로를 따라 일관성을 보이며, 사회사적 변화에 편승하여 점차 변화되는 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것은 사회구성주의 시각에서 볼 때, 주거경로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정체성

과 그에 따른 생활양식에서 나타나는 주거의 의미가 학습효과보다 좀더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규범적 주거결함과 행동적 성향이 나타나고, 주거조절이 행해짐을 보여준다.

이처럼 구술자의 주거경로에서 나타난 정체성과 생활양식을 통해 볼 때, 주거의 의미는 사회변화와 기술수준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주거유형을 거치면서도 사회사적 변화에 따라 변화를 보일뿐 개인적으로는 대체로 일관성과 지속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참 고 문 헌】

경희주거연구회 편(2005). **주거의 의미와 사용**.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김기욱(1997). 우리나라 소비자가 추구하는 생활표준: 질적 접근법을 이용한 소비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15-32.

윤택림(2004).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아르케.

이경희 · 윤정숙 · 홍형욱(1994). **주거학 개설**. 서울:문운당.

전남일 · 손세관 · 양세화 · 홍형욱(2008). **한국주거의 사회사**. 서울:돌베개.

천혜정(2004). 가족학 분야에서의 질적 연구 경향 및 방법론적 문제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161-173.

최은희(2003). 공동주택 평형별 단위평면 구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1999년 이후 분양되어 2001년 이후 입주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8, 134-142.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2008). **질적 연구방법: 이론과 실제, 원리와 적용**. 세미나자료집.

홍형욱(1992). **한국주거사**. 대우학술총서 66. 서울:민음사.

Arias, E.G.(ed)(1993). *The Meaning and Use of Housing*. Newcastle upon Tyne:Athenaeum Press Ltd.

Burr, V.(1995). *An Introduction to Social Constructionism*. London:Routledge.

Gergen, K.J.(1994). *Realities & Relationships: Soundings in Social Construction*. Cambridge, U.S.A.:Harvard University Press.

Clapham, D.(2005). *The Meaning of Housing*. Bristol:The Policy Press.

Flick,U. Kardorff, E. and Steinke, I(eds)(2000). *A Companion to Qualitative Research*. London:Sage Publications.

Franklin, B.J. & Clapham, D.(1997), The Social Construction of Housing management. *Housing Studies*, 12(1), 7-26.

Morris, E. W. & Winter, M.(1978). *Housing, Family and Society*. N.Y.: John Wiley and Sons.

부동산 씨브

http://www.serve.co.kr/sise/s_detail.asp?aptcode=13144&space=100&type=

- 접수 일 : 2008년 10월 09일
- 심사 일 : 2008년 12월 01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01월 13일